

GT
GLOBAL TECH KOREA Industrial Technology & Market Review
글로벌 산업기술·시장동향

아세안·인도 산업·에너지 동향
(5월 주요 News Clipping)





▶ CONTENTS

I. 에너지 산업 동향

1. 라오스, 에너지 전략에 청정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5.12)
2. 베트남 제8차 국가 전력개발계획 승인(5.16)

II. 산업 동향

1. 인도네시아, 디지털 제품 수입에 대한 통관 절차 변경(5.10)
2. 태국, 유럽 제조사 유치하기 위해 전기차 규제 완화(5.17)

III. FDI 및 협력 동향

1. 전기차 생태계 발전을 위한 아세안 정상 성명 채택(5.10)
2. 호주, 캄보디아 농식품산업단지 조성 지원 (5.8)

1. 라오스, 에너지 전략에 청정에너지의 중요성 강조(5.12)

- ❖ ChansaVath Bounpha 라오스 에너지 광산부 차관은 현재 에너지 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청정에너지로 암모니아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전환이 라오스에 필수적이라고 밝힘
- ❖ 특히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 추세임
- ❖ 라오스 정부는 운송 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원, 특히 수소 가스를 사용하는 전략을 세우며, 라오스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연료를 수입하며 2021년에 라오스는 약 8억 3백만 달러 상당의 약 140만 리터의 연료를 수입
- ❖ 라오스의 에너지 전환과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사용은 라오스가 발전, 저비용 운송, 광업과 중공업, 농업과 같은 에너지와 관련된 장단기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임
- ❖ 라오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력,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분야의 잠재력이 크다는 인정을 받음

2. 베트남 제8차 국가 전력개발계획 승인(5.16)

- ❖ 팜민찐 베트남 총리는 2021년~2030년 기간 발전소와 전력망 개발을 안내하는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을 승인
- ❖ 본 계획은 해당 기간 연간 GDP 성장률 7.0%를 달성하는 비전으로 충분한 전력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베트남의 에너지 안보를 유지할 목표를 세움
- ❖ 또한 전력 신뢰성 측면에서 베트남을 아세안 4대 국가 진입 목표로 2030년까지 전국의 사무실 건물과 주택의 절반이 옥상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
- ❖ 공정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본 계획은 2050년까지 국가 에너지 조합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67.5~71.5%로 늘리기 위해 노력
- ❖ 또한 2030년까지 5~10GW를 목표로 수출용 녹색 에너지를 생성하고자 하며,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700만 ~ 3,100만 톤으로 감소할 계획
- ❖ 동 계획은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전원의 제거를 강조하며, 예를 들어, 베트남은 2050년까지 발전용 석탄 사용을 중단하기 위해 에너지 조합에서 석탄 화력 전기의 비중은 2050년까지 5.3%로 감축할 예정
- ❖ 한편, 가스 발전 전력은 2035년까지 40.3GW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가스 발전 전력은 시스템에 추가되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 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0년에 15.7%에 이를 예정
- ❖ 이 시점에 2개의 초지역적 에너지 허브가 구축될 것이며, 주변에는 발전소, 전력망 및 에너지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이 있으며, 중남부 지역을 포함하여 위치가 좋은 특수 지역에 위치할 예정

- ❖ 동 계획은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에 새로운 발전소와 전력망을 개발하기 위해 1,347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될 예상이며, 이는 2050년까지 3,992억 달러에서 5,231억 달러 사이로 증가될 수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새로운 발전소에 배정되고 전력망에 400억 달러 미만 투자될 예상
- ❖ 베트남 정부는 본 계획에 대한 PM의 승인을 입법화하기 위해 제500호의 결정문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획의 실행은 무역산업부(MOIT)의 권한에 속하게 될 것으로 밝힘
 - MOIT는 또한 2024년 국회에서 논의될 전기법과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초안을 준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 본 결정은 또한 MOIT가 직접 전력 구매에 대한 정부에 정책 조언을 제공하고 복잡한 문제로 방해를 받은 에너지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도록 규정
- ❖ 베트남은 공정한 경쟁과 시장 전기 가격에 기반한 복수의 전력 부문을 장려하며 이는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한 경쟁을 보장

1. 인도네시아, 디지털 제품 수입에 대한 통관 절차 변경(5.10)

- ❖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신규 규정(MOF 190/22)으로 디지털 제품 수입에 대한 세관 절차를 변경하였으며 즉 소프트웨어, 운영 시스템과 디지털 도구와 같은 무형 상품에 수입 관세가 부과되어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음
- ❖ MOF 190/2022는 또한 승인된 수입자가 등록 번호를 획득해야 하는 요건 이외 무형 상품 수입에 필요한 지원 세관 문서 유형을 정의하며, 특히 본 규정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가 크게 성장함으로 디지털 상품의 인도네시아로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에 목표
- Bains & Company, Temasek과 Google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는 2022년 총 거래액(GMV)이 770억 달러로 2019년의 410억 달러에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25년까지 GMV가 1,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 디지털 상품의 인도네시아 수입 절차
 - MOF 190/2022에 전자 거래를 통해 인도네시아로 디지털 상품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며 이전 규정인 MOF 228/2015에는 무형 상품의 수입을 신고하는 제도가 없음
 - 수입업자는 무형 상품에 대한 결제 30일 이후 이내에 온라인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며 또한 관련 수입세 및 관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AEO가 아닌 수입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s)는 수출입과 관련하여 정부가 정한 법률 및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준수가 있는 것으로 관세와 소비세 총국에서 인정한 수입업체 또는 수출업체이며, AEO 보유자는 세금과 의무가 유예되고 문서 검토와 물리적 검사 시간이 단축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짐
- AEO가 아닌 인증 수입업자는 인도네시아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취득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수입 관세를 지불하고 물품을 임시 보관소에 처음 보관하는 것과 같은 다른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IP 요건이 적용되는 수입품의 양도

- 지적 재산권 요구 사항이 적용되고 인도네시아 상업 법원에 의해 이전이 중지된 수입 상품은 임시 보관소에서 부분적으로 이전 가능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수입자는 다음 정보와 함께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함
 - 지원자의 신원
 - 상품 설명
 - 상업 법원의 정지 명령 번호 및 날짜

2. 태국, 유럽 제조사 유치하기 위해 전기차 규제 완화(5.17)

- ❖ EV3.5 정책에 대한 두 가지 수정안은 태국에 대한 EV수입을 상쇄하기 위해 태국에서 제조된 고정된 수의 BEV 단위로 외국 제조업체에 대한 요구 사항을 완화
- ❖ 첫 번째 변경 사항은 최대 10개의 좌석, 시간당 10kw 이상의 배터리 용량과 200만 바트 미만의 권장 소매 가격(SRP)을 갖춘 BEV에 적용
- 이러한 차 수입은 픽업 트럭 또는 동일한 크기, 용량과 SRP의 BEV의 국내 제조로 상쇄

- ❖ 두 번째 변경 사항은 30kWh이상의 BEV와 2~7백만 바트의 SRP에 해당되며, 이러한 차 수입은 동일한 모델로 모든 시리즈의 국내 생산으로 상쇄
- ❖ 이러한 변화는 태국에서 인기가 많은 전기 픽업 트럭을 EV 자동차의 대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을 통하여 Mercedes-Benz와 BMW와 같은 외국 제조업체를 유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생산 라인에서 모델 · 시리즈 변경이 빈번한 EV 제조업체에도 도움이 될 예정
- ❖ 담당 내각은 지원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태국은 글로벌 EV 제조 허브가 되기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구매자,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
- ❖ 태국 내각은 또한 EV 투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인정
 - 공급 측면에서 투자청(BOI)은 BEV 생산을 위한 총 투자 가치가 277억 바트인 15개 프로젝트와 EV 부품 생산을 위한 총 투자 가치가 184억 바트인 77개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승인하였으며, 또한 5,076개소의 일반충전소 및 3,960개소의 급속충전소에 대한 총 21.7억 바트의 총투자 규모의 전기 충전소 4개 프로젝트가 승인
 - 수요 측면에서 태국 산업부 산업시설국은 EV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9개의 자동차 · 픽업 트럭 제조업체(GWM, Toyota, SAIC-Motor, MG, BYD, Mercedes-Benz, NETA, Mine 및 Green Filter)와 3개의 오토바이 제조업체(Honda, DECO 및 HSEM)를 포함하고 또한 예산국(Budget Bureau)은 주정부 기관이 오래된 연소 엔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EV를 조달하고 임대하도록 지침을 발행
 - 인프라 측면에서 산업표준국은 전기 자동차, 부품 및 관련 장비에 대한 123개의

표준을 제정하여 국제 표준과 동등한 EV 및 전기 충전소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며, UN R100와 UN R136 표준에 따라 차량, 타이어 및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테스트 서비스는 Chachoengsao 지방의 동부경제회랑에 위치한 자동차 타이어 테스트, 연구 및 혁신 센터(ATTRIC)에서 제공



1. 전기차 생태계 발전을 위한 아세안 정상 성명 채택(5.10)

- ❖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에 진행된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 5월 10일 지역 전기차(EV) 생태계 개발에 관한 아세안 정상 성명이 채택
- ❖ 본 성명은 각 아세안 회원국과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 지역 내 육상 운송 부문 탈탄소화, 순배출 제로 목표 달성 및 에너지 안보 개선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의 일환으로 EV 채택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
- ❖ 아세안 회원국의 전기 자동차 활용과 전기 자동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하는 지역 전기 자동차 생태계를 개발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생산 허브로 아세안을 구축하기로 약속
- ❖ 동 문서는 EV 생태계에 대한 지역 표준의 조화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인증, EV 산업의 지역 가치 사슬 강화, 무역 촉진 강화, 상호 운용성 및 원활한 국경 간 이동성을 보장
- ❖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과 투자 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재료와 자원의 생산 및 사용을 최적화하여 지역 내 EV 공급망의 더욱 높은 가치 창출 달성, 소규모·중소기업 (MSME)의 참여 강화, 연구 개발 활동과 인적 자본 개발에 협력, 투자 기회 촉진과 대중 인식 제고, 적절한 환경 영향 관리, 지역 에너지 보안 강화, 모빌리티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기존 내연기관을

배기가스 제로 차량으로 단계적으로 폐지 및 지역의 EV 생태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 의제 해결 등 아세안 정상들이 전기차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과 협업 모색에 합의

- ❖ 또한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양한 체제와 국제기구를 통해 아세안의 외부 파트너들과 협력과 파트너십을 증진하며 지역 EV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민간 부문과의 참여 연결을 강조

2. 호주, 캄보디아 농식품산업단지 조성 지원 (5.8)

- ❖ 호주는 캄보디아가 캐슈, 카사바, 쌀, 망고, 바나나와 채소 등 농산물을 가공하는 최초의 농식품 산업단지(AIP)를 설립하도록 지원
- ❖ 호주 대사관에 따르면 캄보디아 농산물의 95%가 인근 아세안 국가에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힘
- ❖ 가공 경쟁력을 강화하고 캐슈, 카사바, 쌀, 망고, 바나나, 야채와 같은 주요 작물에 대한 가치를 내수와 수출 시장에 높이기 위해 캄보디아는 자체 농식품 가공 시설을 갖추는 것을 권함
- ❖ 캄보디아 정부의 2022년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AIP는 2045년까지 캄보디아 경제에 51억 달러를 기여하고 최대 10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을 위한 일자리인 것으로 추정
- ❖ 최근 호주의 주력 경제 개발 프로그램인 CAPRED는 AIP 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원을 위한 호주 견학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으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공공, 산업 및 연구 연계와 AIP 구축의 과제에 대한 지식을 제공

- ❖ 산업과학기술혁신부(MISTI)는 지방에 중소기업 산업단지를 설립하여 농산물 원료의 완제품 가공을 활성화하여 내수 시장과 수출을 공급할 계획
- MISTI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500,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이 중 97%는 직원이 10명 미만이므로 소기업으로 분류
- ❖ 캄보디아는 중소기업 부문을 경제의 중추로 간주하고 있다고 Hun Sen 총리가 표명하며 이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부양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재정적 지원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모든 중소기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은행 시스템을 보장하며 정부가 설정한 정책과 은행의 전략적 의도 및 방향이 일차적으로 일관된 상업 은행으로 SME 은행을 설립하기로 결정

글로벌 산업기술·시장동향

아세안·인도 산업·에너지 동향(5월)

발행일 | 2023년 5월

작성자 | 베트남 거점 이재민 소장 (jmlee@kiat.or.kr)

문의처 | KIAT 국제협력기획실 (jskim11@kiat.or.kr)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본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문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자료는 GT온라인 홈페이지(www.gtonline.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GT Industrial Technology & Market Review
GLOBAL TECH KOREA
글로벌 산업기술·시장동향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국 워싱턴 D.C. 거점
 김은정 소장



KIAT
 유럽 벨기에 거점
 강주석 소장



KIAT
 베트남 하노이 거점
 이재민 소장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국 실리콘밸리 거점
 박성환 소장



KEIT
 유럽 독일 거점
 박효준 소장



KORIL(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유럽 이스라엘 거점
 최수명 소장